

제39회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75·석사 4백6·학사 3천9백 82명 수여

90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노천극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전기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가 총39백82명이며 박사학위 75명, 석사학위 4백6명이다. <관련기사 3.4.5면>
또한 각 대학원 수료자는 경영대학원 70명, 행정대학원28명, 신문방송대학원 15명등 1백13명이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서울캠퍼스 신혁탁(법대·

법학) 군, 수원캠퍼스 손위식(제과대·체육학) 군이 수여받는다.
학장상 수상자는 문리대 유성후(영문) 군, 공대 김우경(전자공) 군등 총16명이며 각 학과별 우등상 수상자는 53명이다.
개회식 선언을 시발로 시작되는 이번 수여식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특수대학원 수료자 수료증 수여에 이어 학사학위 수여순으로 졸업장수여가 진행된다.
오늘 함께 거행되는 경희간호

전문대학 학위수여식에서는 총1백20명이 졸업장을 수여받고 최수경양이 총장상을 수상한다.
조영식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모든이의 축복과 기대속에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격려한 뒤 '21세기의 종합문명사회의 기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박4일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잡실 때도 경기장에서 실시한다.
첫날 전체행사인 학교와 총학생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생활안내도 학교측 행사에 이어 총

학생회 소개와 VOU방송제, 풍물패연합회의 공연등이 진행된다.
각 단과대별로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영화·비디오상영, 노래·민요배우기, 노래패공연등을 주로 하며 파벌·조별·토론시간을 통해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갖도록 편성돼 있다.
▲문리대:경기도 광주 시내산수원원 ▲법대:교양군 교양유스호텔 ▲정경대:가정대:마석 서립수원원 ▲사범대:마석 청룡관프장 ▲의대:한의대:강원도 낙산유스호텔 ▲지대:남이섬 ▲약대:천마대 청룡관프장 ▲음대:충북 단양파크호텔 ▲체대:일산YMCA

수강신청 오는 4일부터 9일간

서울캠퍼스 교무과는 91학년도 수강신청기간을 재학생은 3월4일부터 9일간, 복학생은 3월20일부터 7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강신청은 기간내에 O·M·R가드로 작성후 학과사무실

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강신청정정기간은 재학생이 3월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복학생은 정정기간이 없다.
수원캠퍼스 수강신청기간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수원부총장에 김봉걸교수

경영대학원장등 10명 보직 개편

학교당국은 수원캠퍼스 부총장에 김봉걸교수를 10명의 보직교수를 신임발령했다. <관련인터뷰 6면>
지난 1월8일 선임된 이번 보직교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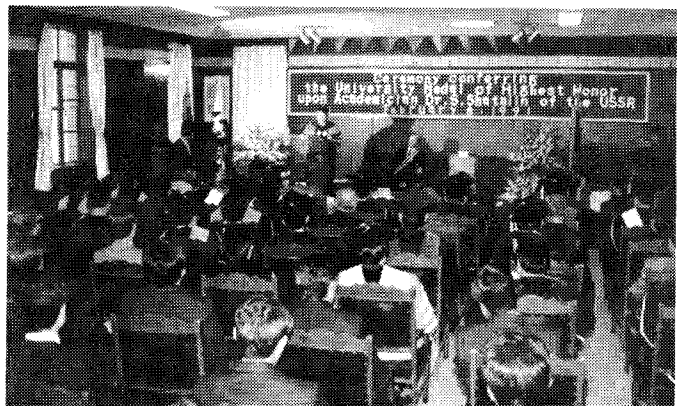
선임된 보직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경영대학원장:김수근(정경대·경영) 교수 ▲행정대학원장:이병식(정경대·정의) 교수 ▲신문방송대학원장:이규중(정경대·정의) 교수 ▲기획관리실

장:이광재(정경대·신발) 교수 ▲학생처장:유승희(체대·체육) 교수 ▲문리대학장:서정범(문리대·국문) 교수 ▲사범대학장:송미심(사범대·교직) 교수 ▲체육대학장:박철빈(체대·체육) 교수
【수원캠퍼스】부총장:김봉걸(공대·화학) 교수 ▲사회대학장:현종민(사회대·행정) 교수
한편 박규장(문리대·화학과) 교수와 진희성(산예대·조경학과)가 2월28일자로 정년 퇴임한다.
이번 정년퇴임식은 동료교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8

스쿨버스 요금 대폭인상
물가폭등·누적된 운행적자 주요인

수원캠퍼스 스쿨버스 요금이 학생·학교·업자등 3자간의 수차례 협상끝에 강남 5백50원, 수원 2백20원으로 1백원, 70원씩 인상됐으며 보조금 역시 모든 차량에 대해 1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조치는 그동안 고질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던 업자들의 요청으로 협상이 시작돼 타결됨으로써 단행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스쿨버스는 강남행 4백50원, 수원행 1백50원씩의 요금에 운행해 왔으며 학교측으로 부터의 보조금은 총31대의 차량중 수원행차량 5대에 대해서만 월15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되 대당 월 20만원씩의 적자를 보여왔다.
이에 업자측은 강남행 6백원, 수원행 2백50원로의 인상과 학교측에 현재 남아있는 차량 27대에 대하여 지원금 10만원 및 자차세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상안이 학생이나 학교측의 주장과 차이를 보여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예상, 3자간의 협상끝에 요금은 강남행 5백50원, 수원행 2백20원으로 인상

하는데 합의하였고 학교 보조금은 27대 모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보험료및 지원금 12만5천원씩을 월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스쿨버스 자가용 영업 적발로 차량수 4대가 줄어들어 따라 스쿨버스 운행도 일부 조정되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되는 오전시간에는 남은 27대 모두를 강남에 투입하고 지금의 수원행 노선은 수원역역 직행버스 10대로 운행하게 된다. 또한 70원에서 1백원으로 인상되는 신갈행버스의 요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스쿨버스영업은 대협업자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만 만큼 운행의 실리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학생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1학기 중으로 기존의 경일여객 직행버스 외에 감실에서 출발하는 100-2번 좌석버스와 수원시내버스 일부노선이 학교 앞까지 연장운행하게돼 신학기부터 교통사정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식총장은 지난 8일 사립인 소련 과학원 경제담당 사무총장과 소련과학자 위원회가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협력 국제재단'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번에 설립된 국제재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과학·기술·정보·문화·경제 교류, 아시아지역의 협력·안전·평화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재단은 조영식총장이 지난90년7월 모스크바를 방문할때 소련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위원회의 4인(아베게안, 샤탈린, 오찌디안, 코비로프)이 설립을 제안하여 이번에 협정에서 서명, 발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첫사업으로는 오는 5월중 모스크바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 안정'을 주제로한 8개국(미, 소, 일, 중, 한국, 북한, 대만, 몽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8개국 저명학자들뿐 아니라 각 국의 고위정책 결정자도 참가하게 되며 본교에서도 현재 세미나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등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본교는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방문한 샤탈린 소련과학원 경제담당 사무총장에게 지난8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대학장을 수여했다.
이에대해 전국의 한의과대학생

한의사 국가시험 대거 탈락 출제 방식의 오류지적, 거센 반발

'제44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본교를 포함한 전국 5개 한의대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 한의대생들이 시험문제 출제과정과 출제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매년 1백%에 가까운 합격율을 보여 오던 본교 한의대는 65.25%로 저조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국가시험 합격율 78%에비해 63.25%로 떨어졌다.

이에대해 전국의 한의과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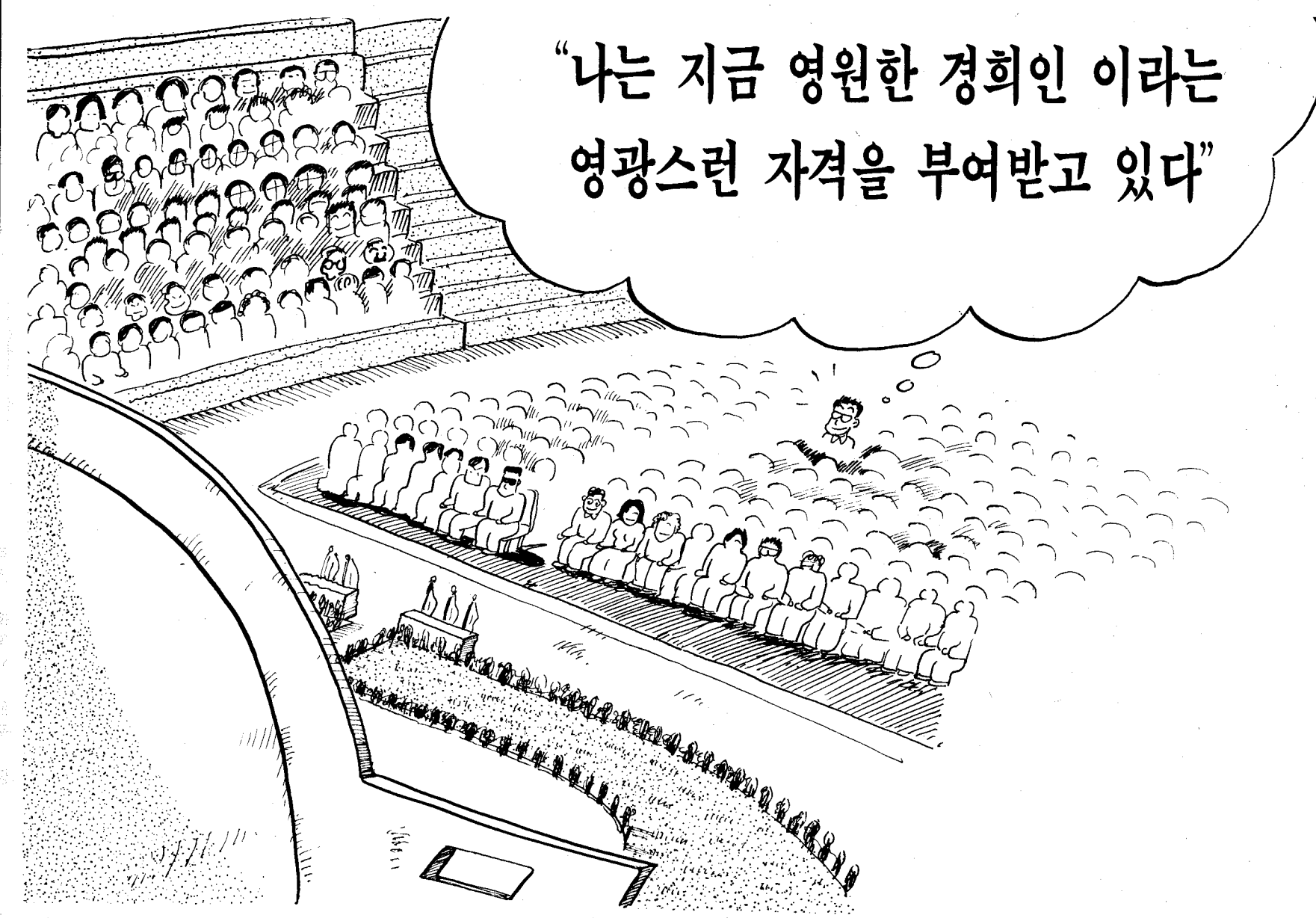
본교에서도

등잔 밑이 어두운 '노학연대'

▼87년 6.7.8월은 지배논리에 무능했던 민중들의 자발적인 변혁요구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의 통일과 계급적 연대의 미비는 반동적 정권의 탄생을 저지하지 못했다. 가진자들의 거친 횡포에 대해 민중들의 조직적 연대 투쟁은 필수적이다. 같은 조직적 위상과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이는 민중연대 내부의 자기멸과 가진자들의 농락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본교에서도 노동조합과 총학생회의 연대는 '노학연대'의 관점을 생활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실제적인 활동 또한 많이 있었다. 등록금 투쟁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과 결부된 연대투쟁, 학원 민주화에 대한 공동노력,

노동절·대동제 등에서 함께하는 모습에서 같은 목표로 힘을 모은 집단체가 더 큰 성과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법안인합의회가 사무직 조합원의 노동운동제한의 법령제정을 관계기관에 제출한데 대해 본교 노동조합을 비롯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한부 파업등 공동대응을 결의, 단결력을 과시했다. 반면 대다수 학생들은 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고 총학생회도 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지지성명이 없었다. 이는 기존 행사 또는 학원 민주화투쟁에서 서로의 방법론적인 차이만을 확인한 채 형식적 연대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대

화통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도 기인한다.
▼3월초부터 본격화된 총학생회의 등록금 협상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은 개별적인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측과 협상할 때 총학생회는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과 연대함으로써 경비, 인력, 행정에 관해서도 올바른 근거를 가질수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도 총학생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더 힘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89년 3월 대학발전 위원회 결성이 상호간 결속력의 미비로 무산된 것을 거울삼아 현실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학의 발전과 민주화라는 공동의 과제는 서로가 대화를 통해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



졸업의 의미는 단순한 마감일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 자신의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를 한번쯤 곱씹어 보아야 하는 시간. 졸업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의미합니다.

대학주보사

졸업식은 진정한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신성한 의식이며, 경희인의 장도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식장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졸업식이 시작되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본교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교무처장